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7월 1주 ~ 7월 2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- 폴란드, 2026년 1~4월 대외무역 17억 유로 적자 기록(6.22)
 - 2026년 1~4월 누적 수출액은 1,259억 유로, 수입액은 1,276억 유로로 집계, 약 17억 유로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,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, 체코, 프랑스, 주요 수입 대상국은 독일, 중국, 미국으로 나타남
- 폴란드, 5월 기업 고용 감소·임금 상승 지속(6.22)
 - 2026년 5월 기준 10인 이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0.9% 감소, 평균 임금은 5.8% 증가, 5월 기업 부문 평균 월 총급여는 9,173.24즈워티로 집계되며 명목임금 상승세가 지속
- 폴란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.5% 기록, 시장 전망 하회(6.30)
 - 폴 통계청은 2026년 6월 소비자물가(CPI)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.5%를 기록하며 5월(3.1%) 대비 0.6%p 하락했다고 발표
 - 앞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3.2%, 5월 3.1%를 기록한 데 이어 6월에는 폴 중앙은행(NBP)의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.5%까지 하락하며, 중기적으로 안정적 물가 흐름을 예상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- 우크라이나 주택거래 감소에도 주택가격 상승 지속, 수급 불균형 심화(7.1)
 - 우 중앙은행(NBU)은 거래량 감소에도 공급 부족과 흐리우냐 약세, 전시 위험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
 - 거래는 키이우,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, 하르키우, 리비우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, 실수요자는 소형·실용형 주택을 선호하는 반면 공급은 대형 신축 위주로 이뤄져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음

- 기존주택 가격은 최근 6개월간 신축주택보다 5~10%p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, 국내 실향민 지원 정책과 키이우 외곽 수요 증가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됨
- **우크라이나, 전쟁 장기화로 외국인직접투자(FDI) 회복세 제한(7.6)**
 - 우크라이나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21년 73.2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3.5억 달러까지 급감했으며 2025년에는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.6% 감소하는 등 여전히 전쟁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함
- **우크라이나,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(7.1)**
 - 우크라이나 2026년 5월 소비자물가(CPI)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.2%로 4월(8.6%) 대비 둔화되었으며, 월간 상승률은 0.9%를 기록

3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- **Fortum, Zabrze 열병합발전소 열에너지 저장설비 구축 추진, 71.5백만 즈워티 규모 계약 체결(6.19)**
 - 핀란드 에너지기업 Fortum은 폴란드 자브제(Zabrze) 열병합발전소(CHP)에 열축열조(Heat Accumulator) 및 펌프장 설치를 위해 Mostostal Zabrze 계열사와 Kelvin 컨소시엄과 총 71.5백만 즈워티 규모의 EPC 계약을 체결
 - 공사는 2027년 4분기 완료를 목표로 하며, 계약 금액의 약 75%는 Mostostal Zabrze 계열사가 담당
 - Fortum은 별도로 약 85백만 유로를 투자해 자브제 CHP의 연료 체계를 석탄에서 인증 산림 바이오매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현대화 사업도 추진 중
- **Mostostal Warszawa, 경영난 속 최대 5.7억 즈워티 유상증자 추진, 금융감독청 결정이 회생 분수령(6.22)**
 - 폴 주요건설사 Mostostal Warszawa가 2025년 약 12백만 즈워티의 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, 425백만~570백만 즈워티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, 경영진은 자본 확충이 무산될 경우 구조조정·파산·청산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
 - 회사는 10개 금융기관과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신규 신용공여 확보에

실패했으며, 기존 금융기관들도 지원을 축소하는 상황에 일부 발주처가 신규 계약 이행 능력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수주 활동에도 어려움이 발생

- 최대주주인 스페인 Acciona 그룹은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, 지분 확대에 따른 공개매수 의무와 관련해 주당 1즈워티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폴 금융감독청(KNF)의 승인을 조건으로 제시
- **Baltic Power 해상풍력단지 터빈 76기 중 50기 설치 완료, 사업 마무리 단계 진입(6.22)**
- **CPK, 신공항 여객터미널 기초공사 착수, Budimex와 146백만 즈워티 계약 체결(6.22)**
 - CPK는 건설사 Budimex와 신공항(Port Polska) 여객터미널 기초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, 계약 규모는 약 146백만 즈워티
 - 인프라부는 2026년 9월부터 본격적인 토목·굴착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, 기초공사는 2027년 말~2028년 초 완료를 목표로 추진
 - CPK는 향후 계약감리(Contract Engineer) 선정과 여객터미널 본공사(EPC)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, 터미널 주계약자는 2026년 말까지 결정될 전망
- **MLP Group, 제슈프(Rzeszów) 물류단지 개발 착수(6.23)**
 - 폴 물류부동산 개발사 MLP Group은 포드카르파츠키에(Podkarpackie)주 제슈프에 신규 물류단지 'MLP Rzeszów' 건설에 착수
 - 1단계 사업으로 연면적 26,000m² 규모의 물류창고를 건설하며, 시공은 BREMER가 담당하고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
 - 전체 개발이 완료되면 약 65,000m² 규모의 물류·생산·유통 복합단지로 확대될 예정이며, 입주사 확보 이전에 선제적으로 착공하는 Speculative 개발 방식으로 진행
- **폴 항만업체, EU 방위기금 활용 확대 추진, 민군겸용 인프라 투자 강화(6.23)**
 - 폴 항만업체는 항만 인프라를 민군겸용 이중용도 시설로 설계해 EU 방위·안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

- 대표 사례로 Gdynia 인터모달 터미널을 제시하며, 물류·환적 기능과 함께 군수지원 인프라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강조
- 폴란드는 EU 집행위원회로부터 437억 유로 규모의 지원 한도를 배정받은 최대 수혜국이며, 항만·철도·도로 등 전략 물류 인프라 현대화에 활용하고자 함
- BGK, 유럽 바이오메탄 펀드에 25백만 유로 투자, 재생에너지 전환 금융 확대(6.22)
 - 폴 국책개발은행 BGK는 프랑스 SWEN Capital Partners가 운용하는 바이오가스·바이오메탄 프로젝트 펀드(SWIFT 3)에 25백만 유로를 투자
 - 해당 펀드는 유럽 및 OECD 국가 전반에서 최신 기술 기반의 바이오가스·바이오메탄 생산 시설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에너지 전환 투자 프로그램으로, 유럽투자기금(EIF), 스페인 국부펀드 COFIDES 등 10여 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
 - BGK는 이전에도 Eiffel Transition Infrastructure Fund(25백만 유로), Future Energy Ventures(20백만 유로)에 투자하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분야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음
- 폴, 발트해 3번째 LNG 터미널 건설 추진, FSRU 기반 가스 허브 구축 가속(6.23)
 - 그단스크만(Bay of Gdańsk)에 FSRU 2 프로젝트를 추진하며, 추가 1기 도입을 통해 사실상 3번째 LNG 터미널 체계를 구축할 계획
 - 현재 운영 및 확정된 인프라는 슈체친-스비노우이시체 LNG 터미널, FSRU 1, FSRU 2로 구성되며 총 3개 터미널 체제로 확대 예정, 4개 기업이 장기 용량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FSRU 선박 도입 및 시설 건설이 확정 단계에 진입
 - 폴란드 전체 LNG 재기화 능력은 연간 200억m³에서 최대 약 500억m³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며, ORLEN은 FSRU 2 용량 중 2030~2039년 기간 12개 슬롯을 확보, 장기적으로 약 12.5억m³/년 규모의 추가 공급 능력을 확보하였음

- 폴 Green Capital, 중동부유럽 지역 녹색에너지 생산 플랫폼 구축 추진 및 전략적 투자자 유치 계획 발표(6.23)
 - 폴 재생에너지 개발·운영사 Green Capital은 중동부유럽 지역의 주요 녹색에너지 생산기업 및 컴퓨팅 인프라(데이터센터) 전력 공급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2026년 3분기부터 전략적 투자자 유치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
- 폴·우 에너지 협력 확대 논의, Orlen-Naftogaz 추가 계약 가능성 제기(6.24)
 - 폴 에너지부의 모티카 장관은 우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 슈미할과 회담에서 폴란드 국영 에너지기업 Orlen과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기업 Naftogaz 간 추가 협력 계약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
 - 모티카 장관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측에 다양한 에너지 공급 및 인프라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, 향후 우크라이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협력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
 - 또한, 발트해 그단스크만에 추진 중인 제2 부유식 LNG 터미널(FSRU2) 용량 배정 절차에서 해외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폴란드는 해당 설비를 활용해 우크라뿐 아니라 헝가리·슬로바키아 등 중부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축소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
- ELQ, 중국 Tianneng과 체스토호바 에너지저장장치 조립공장 설립 추진(6.24)
 - 폴 에너지 인프라 기업 ELQ는 세계적인 ESS 제조기업인 중국 Tianneng과 Częstochowa 내 에너지저장장치 조립공장 건설 및 폴란드 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협력 의향서(LOI)를 체결했다고 발표
 - 양사는 공동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며, 폴란드 및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생산·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
 - 사업 목표는 가동 후 첫 12개월 내 총 1GWh 규모 프로젝트 수행, 향후 3년 내 5GWh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
 - 신규 합작법인은 ELQ가 보유한 체스토호바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생산 역량을 확대, 공장 건설은 2027년 1분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
- PKP PLK, 3.9억 즈워티 규모 그단스크 항만 연계 Pszczółki - Pruszcz

Gdański 구간 4번째 선로 건설 계약 체결(6.26)

- PKP PLK는 폴 북부 포모르스키에 지역에서 약 9km 구간에 해당하는 단일선로 추가(제4선로) 건설 계약을 체결했으며, 총 사업비는 약 392.4백만 즈워티 수준으로 집행됨
- 해당 사업은 Port of Gdańsk으로 향하는 철도 화물 수송 능력을 확대하고, 여객(광역·장거리)과 화물 열차를 분리하여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목적
- 신규 약 9km 선로에는 ERTMS(유럽 열차 운행 제어 시스템)가 적용되며, Skowarcz·Różyny·Cieplewo 3개 정거장 구간의 승강장도 개보수되어 여객 처리 능력도 함께 개선될 예정
- 시공은 ZRK-DOM(주관)과 TorKo1 컨소시엄이 담당하며, 설계 단계는 이미 진행 중이고 실제 공사 기간은 2028~2030년으로 계획됨

○ Rohlig SUUS Logistics, PFR과 협력해 30백만 유로 규모 해외 확장 투자 프로젝트 추진(6.29)

- Rohlig SUUS Logistics는 폴란드 국가개발기금 PFR과 전략적 투자협약을 체결하고, 중·동부 유럽 및 중앙아시아 시장에서의 국제 확장 가속화를 추진
- 총 프로젝트 규모는 약 30백만 유로며, 이 중 10백만 유로는 PFR의 Foreign Expansion Fund 2 FIZ AN을 통해 조달되어 해외 사업 확대 및 신규 성장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
- 해당 투자 구조에는 무역 및 물류 리스크를 보증하는 KUKED도 참여하여, 해외 진출 과정의 금융·정책 리스크를 완화하는 형태로 설계됨

○ 폴란드 카토비체, 남부 트램 노선 건설사업 입찰에 14개사 참여(6.30)

- 폴 카토비체시 산하 투자기관인 Katowickie Inwestycje가 추진하는 남부 트램 노선 건설사업 입찰에 총 14개 기업(컨소시엄 포함)이 참여했으며, 입찰금액은 약 356.8백만~522백만 즈워티로 집계됨
- 발주처는 총 648.8백만 즈워티를 사업 예산으로 책정했으며, 브리누프(Brynów) 환승센터부터 코스투흐나(Kostuchna) 환승센터까지 총 4.6km의 신규 트램 노선을 건설하는 것으로, 약 10km(단선 기준)의 선로와 6개 신규

정류장, 환승센터, 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을 함께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함

- 동 사업은 당초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, 환경영향평가와 주민·환경단체의 이의 제기 등으로 절차가 지연됐으며, 2024년 관련 소송이 종결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

○ Energa Operator, KPO 통해 스마트 전력망 투자금 3억 즈워티 확보(6.30)

- 폴 Energa Operator는 국영개발은행(BGK)과 국가재건·복원계획(KPO) 재원의 3억 즈워티 이상 규모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며, 해당 자금은 전력망 디지털화와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예정임
- 조달 자금은 스마트 전력계량기(AMI) 보급 확대, 스마트 전력망(Smart Grid) 관리시스템 구축, 정보통신 및 사이버보안 인프라 고도화 등에 활용, 이를 통해 고장 대응 속도 향상, 전력 흐름 최적화, 송배전 손실 감소,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확대 등이 기대됨
- Energa Operator는 2025~2035년 동안 총 400억 즈워티 이상을 전력망 현대화에 투자할 계획이며, 이번 대출을 포함해 현재까지 KPO를 통해 약 94억 즈워티의 투자 재원을 확보함

○ Greenvolt Power, BYD와 폴 최대 BESS 구축 계약 체결(7.1)

- Greenvolt Power는 BYD Energy Storage와 폴란드 Siedlce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를 BESS 공급 계약을 체결
- 해당 프로젝트는 설비용량 600MW, 저장용량 2.4GWh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, 완공 시 폴란드 최대이자 유럽 최대 규모 중 하나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설이 될 전망
- 해당 프로젝트는 용량시장(Capacity Market) 제도를 통해 수익이 보장된 상태이며, 2026년 3분기 착공, 2027년 말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추진됨
- 이번 계약은 양사의 기존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, Greenvolt와 BYD는 2025년 3월 투로시니 코시치엘나(Turośń Kościelna, 200MW/800MWh) 및 노바 비에시 에우츠크(Nowa Wieś Elcka, 200MW/800MWh) BESS 프로젝트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

○ **Tauron, Jaworzno 가스발전 프로젝트 터빈 공급사로 Ansaldo Energia 선정(7.2)**

- 타우론 발전 자회사 Tauron Wytwarzanie는 Jaworzno 600MWe급 가스 피킹발전소 건설 사업의 Turbine Island 공급사로 이탈리아 안살도 에네르기아(Ansaldo Energia)를 선정하고, 공급 계약과 장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
- 공급 계약에는 314.6MW급 AE94.3 가스터빈 2기, 관련 설비 및 부대 시스템, 기술문서, 설치·시운전 기술지원, 소모품 공급 등이 포함
- 가스터빈은 2028년 11월 30일과 2029년 1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
- 공급 계약 규모는 193백만 유로, 장기 유지보수 계약 규모는 1억 유로로, 총 계약 금액은 293백만 유로에 달함

○ **Polenergia·Equinor, 발틱해 해상풍력단지 Bałtyk 2·3 기초공사 50% 완료(7.2)**

○ **EU 현대화기금, 폴란드에 180백만 유로 지원 결정(7.2)**

- 유럽연합 집행위원회(EC)와 유럽투자은행(EIB)은 EU현대화기금을 통해 11개 회원국의 에너지 프로젝트 51건에 총 25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, 이 가운데 폴란드는 180백만 유로를 배정받음
- 폴란드 지원 대상 사업은 지역난방 시스템의 열에너지 저장시설 구축과 농촌 지역 다세대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,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
- 이번 지급으로 2021년 1월 이후 현대화기금을 통해 집행된 누적 지원 규모는 총 232억 유로로 확대
- 폴란드는 2021~2030년 동안 약 600억 즈워티 규모의 현대화기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며, 폴란드에서는 국립환경보호·수자원관리 기금(NFOŚiGW)이 현대화기금 운영기관을 맡고 있음

○ **Føn Energy, Baltic Power 해상풍력단지 장기 운영·유지보수 계약 체결(7.1)**

- 노르웨이계 Føn Energy Services Poland는 폴란드 최초 상업용 해상

풍력 프로젝트인 Baltic Power와 수백만 유로 규모의 장기 운영·유지 보수(O&M) 계약을 체결

- Baltic Power 프로젝트의 로컬 콘텐츠 비중은 사업 전 기간 동안 21% 이상으로 예상되며, 이는 폴란드 해상풍력 산업협약의 1단계 목표 (20~30%)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평가
- Baltic Power는 Orlen과 Northland Power의 합작 프로젝트로, 15MW급 풍력터빈 76기(총 1.14GW)를 설치해 폴란드 전체 전력수요의 약 3%를 공급할 예정임

○ OSGE, 폴란드 BWRX-300 SMR 14기 건설 위한 정부 지원(CfD) 신청(7.1)

- Orlen Synthos Green Energy(OSGE)는 폴란드 기후환경부에 GE Vernova Hitachi의 BWRX-300 소형모듈원전(SMR) 14기 건설을 위한 차액계약(Contract for Difference, CfD) 방식의 정부 지원 제도 도입을 공식 신청
- 대상 부지는 브워츠와베크(Włocławek), 스타비 모노프스키에(Stawy Monowskie), 스탈로바 볼라(Stalowa Wola) 등 3개 지역이며, 브워츠와베크의 첫 번째 BWRX-300은 2032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
- 이번 14기는 OSGE가 추진하는 총 26기 BWRX-300 SMR 보급 계획의 1단계 사업으로, OSGE는 대량 발주와 표준화·모듈화를 통해 건설 단가를 낮추고 산업용·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경쟁력 있는 전력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

○ PESA, 독일 트램 제조사 HeiterBlick 인수 완료(7.1)

- 폴 철도차량 제조업체 PESA Bydgoszcz는 독일 라이프치히 소재 트램 제조사 HeiterBlick 지분 100% 인수를 최종 완료
- PESA는 현재 자사 비드고슈치(Bydgoszcz) 공장에서 라이프치히 교통 공사(LVB)용 트램 차체 생산을 시작했으며, 라이프치히·도르트문트·뉘르츠부르크 등 기존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과 추가 발주 확보를 위해 독일 고객 및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
- 이번 인수는 폴란드개발기금(PFR)의 투자 지원과 BGK(국책은행)의 금융 지원, KUKI의 보험보증 등 'Team Poland' 체계를 활용해 추진되었음

- **CLIP Group, Małaszewicze·Zabrze 복합물류터미널 완공 임박(7.1)**
 - 폴 물류기업 CLIP Group은 말라세비체(Małaszewicze)와 자브제(Zabrze)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복합운송 터미널 건설이 마무리 단계라고 발표함
 - 말라세비체 터미널은 최종 선로 공사와 사용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이며, 자브제 터미널은 2026년 9월 24일 개장을 목표로 함
 - CLIP Group은 향후 우 재건을 위한 물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중량 화물 운송이 가능한 철도 인프라와 환적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함
- **CPK, 바르샤바-우치 고속철도 핵심 구간 건설 본격화(7.3)**
 - CPK는 바라누프(Baranów) 신공항과 볼리무프(Bolimów) 분기점을 연결하는 14.3km 고속철도 구간의 설계·시공 사업을 위한 경쟁적 대화에 8개 기업 및 컨소시엄이 참여 신청했다고 발표함
 - 참여 기업에는 Budimex, Mostostal, Strabag, Torpol, Mirbud, ZUE, Porr, Trakcja, Intercor, Gülermak 등 폴란드 및 해외 주요 철도·건설사가 포함
 - 사업에는 설계속도 최대 시속 350km의 고속철도 노선과 교량·고가교 등 총 55개 구조물, 약 30km의 도로 신설·개량이 포함되며, CPK는 신청 기업 가운데 최대 5개 업체를 선정해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
- **Zwartowo 태양광발전소, 폴 최초로 전력계통 서비스 시장 진입(7.3)**
 - 204MW 규모의 즈바르토보(Zwartowo) 태양광발전소가 폴란드 태양광발전소 가운데 최초로 전력계통 안정화 서비스 시장의 자격 심사를 통과
 - Respect Energy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계통 유연성 제공과 안정화 서비스 참여가 향후 전력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, 해당 사업을 상업적으로도 수익성이 있는 모델로 평가함

4 **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**

- 체르카시주 우만, ‘아그로-이노베이션 허브’ 산업단지 조성 추진, 4.12억 흐리우냐 투자 유치 기대(6.19)

- 우크라 내각은 체르카시주 우만(Uman)에 조성되는 ‘아그로-이노베이션 허브(Agro-Innovation Hub)’ 산업단지를 공식 등록했으며, 총 412백만 흐리우냐 규모의 투자 유치와 약 1,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
- 총 22.94헥타르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식품가공 산업을 중점 육성할 예정이며, 사업은 DK-Industrial이 주도,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총 121개의 산업단지가 등록되어 운영·개발 중
- **Apartel, 키이우 인근 50백만 달러 규모 리조트 개발 검토(6.19)**
 - 우크라 아파트호텔 운영사 Apartel은 키이우주 내 24헥타르 부지에 총 50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대규모 웰니스 리조트 개발을 검토 중이며, 150객실 호텔과 레스토랑, 스파 시설, 수영장, 스포츠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복합 휴양단지 조성을 계획
 -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를 자사 포트폴리오 내 가장 유망한 사업 중 하나로 평가, 러시아의 미사일·드론 공격에 따른 투자 위험으로 인해 착공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
 - Apartel은 종전 이후 휴양·레저 인프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, 해당 유형의 리조트 개발 사업의 연간 수익률을 10~15% 수준으로 책정하였으며, 공사 기간은 착공 후 약 3년으로 예상됨
- **노르웨이, 우크라 방산기술 투자 위한 85백만 달러 벤처펀드 출범(6.22)**
 - 노르웨이 벤처펀드 ‘가르다르(Gardar)’가 우크라 방산기술기업 투자 목적으로 85백만 달러 규모로 출범, 신규 투자자 유치 시 올해 가을까지 약 1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
 - 펀드는 드론, 자율무기체계, 전자전(EW) 장비 등 전쟁 과정에서 개발·검증된 우크라의 첨단 방산기술 스타트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선정
 - 주요 투자자는 노르웨이 연기업 Mowi의 대주주인 Witzoe 가문, 투자회사 Kistefos, 산업·금융그룹 Ferd의 요한 H. 안드레센 등 유력 투자자들이 참여
 - 가르다르는 연평균 약 15%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우크라 방산기술 육성과 함께 유럽의 방위역량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

- World Bank, 우크라 민간투자·일자리 창출 지원 위해 33.9억 달러 규모 정책금융 승인(6.23)
 - World Bank는 우크라이나의 민간부문 성장과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'우크라이나 일자리 및 민간부문 성장 개발정책금융(DPO, Development Policy Operation)' 1차 사업으로 총 33.9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승인
 - 이번 사업은 총 2단계 프로그램 중 첫 번째 사업으로, 우크라이나의 경제개혁 및 EU 가입 준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
 - 금융 패키지는 ▲World Bank 대출 10.4억 달러 ▲일본 지원 ADVANCE Ukraine 신탁기금 5.4억 달러 신용보강(Credit Enhancement) ▲영국 지원 5억 달러 보증 ▲F.O.R.T.I.S. 금융중개기금(Financial Intermediary Fund)의 23.5억 달러 무상지원으로 구성
- 우 국유재산기금(SPFU), 2026년 민영화로 70~90억 흐리우냐 조달 추진(6.23)
 - 우 국유재산기금(State Property Fund of Ukraine, SPFU)은 2026년 민영화를 통해 약 70~90억 흐리우냐 규모의 국고 수입을 확보할 계획
 - 민영화 대상 자산은 약 10개이며 총 시작가는 100~130억 흐리우냐 수준으로, 이 중 6~7개 대형 자산이 연내 매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
 - 핵심 매각 대상은 키이우의 쇼핑몰 Ocean Plaza로, 약 45억 흐리우냐 규모의 대표 민영화 자산으로 거론
 - 이 외에도 오데사 포트 플랜트(Odesa Port Plant), 수미화학공장(Sumykhimprom), 미콜라이우 알루미나 공장(Mykolaiv Alumina Plant), 인슐린 제조사 Indar 등 주요 전략 산업 자산이 포함되었으며, 이들 자산의 상당수는 과거 러시아계 소유였으나 전쟁 및 제재 과정에서 국가로 이전된 후 재민영화 대상으로 편입
- EBRD, URC 2026에서 5억 유로 이상 신규 투자 계약 체결 예정(6.23)
 -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은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기간 중 총 5억 유로 이상 규모의 신규 투자 계약을 체결 예정
 - 투자금은 우크라 에너지 인프라 복구 및 금융부문 지원에 집중되며, EBRD는

전쟁 이후 핵심 우선 분야로 에너지 부문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

-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Galnaftogaz가 추진하는 189MW 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와 독일 재생에너지 기업 Notus Energy의 120MW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계약 체결이 예정됨
- 금융부문에서는 우크라이나 내 7개 은행과 총 270백만 유로 규모의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기업 및 민간부문 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
- EBRD는 EU 및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격안정화 메커니즘(Price Stability Mechanism) 구축도 추진 중
- 해당 제도는 전력가격 변동 위험을 완화해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최대 1.5G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 유치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

○ **BGV Group, Veolia와 우크라이나 인프라 공동투자 협력 체결(6.24)**

- 우크라 투자기업 BGV Group과 프랑스 환경·에너지 인프라 기업 Veolia의 우크라 법인인 Veolia Holding Ukraine가 우크라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
- 양사는 프로젝트 기획, 투자 검토, 자금 조달 및 사업 실행 전반에 걸쳐 협력할 예정이며, 재생에너지, 상하수도 및 정수시설, 폐기물 관리, 폐기물 기반 열·전력 생산(Waste-to-Energy) 분야를 중점 협력 영역으로 설정

○ **EBRD-EIB, 키이우 대중교통 현대화 사업에 대규모 자금 지원(6.24)**

- EBRD와 EIB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도시교통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지하철 차량 교체 및 버스·트롤리버스 도입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
- EBRD는 키이우 지하철 현대화 사업을 위해 최대 150백만 유로 규모의 대출을 승인했으며, 해당 자금은 신규 전동차 구매, 예비부품 확보, 정비 장비 및 진단시스템 도입에 사용될 예정
- 이번 사업은 키이우 지하철 차량 교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, 2026년 5월 키이우시 행정부가 사업 추진을 승인하고 EBRD(150백만 유로)와 EIB(140백만 유로)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
- 전체 지하철 현대화 사업 규모는 520백만 유로 이상으로 추산되며, 이 중

약 49.4백만 유로는 신규 전동차 구매에, 약 117.7백만 유로는 신규 노선 운영 지원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예정임

○ **젤렌스키, 폴란드 URC 2026 불참 결정, 역사 문제로 양국 갈등 고조(6.23)**

-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주 폴란드 그단스크(Gdańsk)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(Ukraine Recovery Conference, URC)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, 우크라 대표단은 스비리덴코 총리가 이끌 예정
- URC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투자 협력을 논의하는 최대 규모 국제행사 중 하나로, 폴란드가 처음 개최국을 맡았으며 유럽 주요 정상과 대표단, 기업들이 참석 예정
- 젤렌스키 대통령의 불참 배경에는 최근 역사 문제를 둘러싼 폴·우 간 외교적 갈등 심화가 자리한 것으로 평가됨
- 갈등의 직접적 계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반군(UPA, Ukrainian Insurgent Army) 명칭을 군 부대에 부여한 결정으로, 폴란드는 UPA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만 명의 폴란드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음
- 반면 우크라이나는 해당 조직을 독립투쟁의 상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, 역사 해석을 둘러싼 양국 간 인식 차이가 다시 부각된 상황
- 이에 대응해 최근 폴란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수여됐던 폴 최고 훈장인 백수리훈장(Order of the White Eagle)을 박탈, 이 조치는 우크라 내에서 강한 반발을 초래
- 폴란드 투스크 총리는 "현재의 감정적 갈등보다 장기적 안보와 미래 협력이 중요하다"며 긴장 완화를 촉구, 재건회의 기간 중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기업 간 약 200건의 계약 및 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다고 밝히며, 경제·재건 협력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

○ **Yaremche Wind Energy, 우크라이나 카르파티아 지역 110MW급 풍력발전단지 개발 추진(6.29)**

- Yaremche Wind Energy는 우크라 서부 카르파티아 산악지대에 최대 110MW 규모 풍력발전단지(약 20기 터빈)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, 산악 슬로프를 활용한 발전단지 형태로 계획됨

- 사업 부지는 Yaremche 시의회가 승인한 리스니우스키 능선(Lisnivskyi ridge) 일부 구간으로, 물류·건설 장비 반입, 송전선 설치, 풍황 계측 등의 용도로 사용 허가가 부여됨
 - 향후 1년간 풍황 및 환경 영향 조사(EIA)가 진행되며,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2027년 말부터 본격적인 건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
 - 해당 프로젝트는 전쟁 상황 및 전력망 접근성, 풍력 자원 잠재력을 고려해 우크라 서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흐름을 반영하는 사례로 평가됨
- BGK, 유럽 우크라이나 재건 펀드 참여 및 15백만 유로 투자 결정(6.29)
- BGK는 유럽개발은행 주도로 설립된 'European Flagship Fund for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(EU FF)'에 가입하고 약 15백만 규모의 초기 투자를 약속했으며, 해당 결정은 올해 Ukraine Recovery Conference 2026 기간 중 공식 체결됨
 - 해당 펀드는 EIB를 비롯해 폴란드, 독일, 이탈리아,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개발금융기관들이 참여하여 조성한 약 260백만 규모의 초기 펀드로, 우크라 경제 재건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촉진이 핵심 목표
 - 투자 대상은 우크라이나 내 에너지, 디지털 인프라, 교통망 등 핵심 인프라 분야와 함께 의료·제약, 건설자재, 금융, 유통, IT 등 중소·중견 기업(MSME) 산업 전반을 포함
 - 본 펀드는 전쟁 피해 복구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과정과 연계된 구조적 경제 현대화 및 민간 자본 유입 촉진을 목표로 설계됨
 - BGK의 투자 재원은 개발협력 금융수단(FIDC, Financial Instrument for Development Cooperation)을 통해 조달되며, 유럽 개발금융기관 간 공동 투자 구조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형태로 운영됨
- CEB, 우 주택 재건 프로그램에 251백만 유로 신규 금융 지원 승인(6.29)
- 유럽 평의회 개발은행(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, CEB)는 우크라 정부와 협력하여 전쟁으로 주택을 상실한 시민 지원을 위한 주택 금융 프로그램에 총 251백만 유로 이상의 신규 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
 -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'eRecovery' 확장(1억 유로)과 HOME 프로젝트

(50백만 유로 CEB + 50백만 유로 이탈리아 정부)가 포함되며, 파괴된 주택에 대한 보상 및 주택 인증서 기반 재정착 지원을 확대

- 추가로 약 80백만 유로는 실향민(IDPs) 대상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에 투입되어 약 2,000가구 지원이 예상되며, 전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및 재향군인이 우선 대상
- 별도로 'Housing for Veterans' 프로그램에는 약 60백만 유로가 투입되어 1,500건 이상의 우대 주택담보대출이 제공될 예정

○ 폴란드 ELQ,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문에 최대 30억 유로 투자 추진(6.30)

- 폴 에너지기업 ELQ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해 25억~30억 유로를 투자하고, 총 약 2GW 규모의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
- 투자 대상은 태양광 발전, 풍력발전, 에너지저장장치(ESS), 바이오가스 발전 시설 등 분산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구성되며, 전쟁으로 훼손된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의 조기 복구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ELQ는 중장기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(SMR)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며, 체코 기업 Witkowitz와 협력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, 첫 번째 SMR은 우크라이나 리비우 인근에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

○ 우크라이나, 5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공개(6.30)

- 우크라이나 정부는 URC2026(우크라이나 재건회의)에서 약 50억 달러 규모의 30여 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국제 투자자들에게 공개했으며, 철도역·항만·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임
- 공개된 프로젝트의 약 절반은 2026년 중 착수를 목표로 하며, 정부는 국제 원조 중심의 재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·국제금융기관(IFI)·민간 투자자 간 협력(PPP 및 양허체계) 기반의 재건 모델을 확대할 방침임
- 주요 사업으로는 ▲초르노모르스크(Chornomorsk) 항만 터미널 양허권 ▲리비우 인근 스크닐리우(Sknyliv) 복합물류허브 조성 ▲키이우·리비우·오데사 철도역 현대화 ▲EU 국경 연결 교통망 확충 ▲리비우 북부 우회도로 건설 ▲드니프로·우즈호로드·후스트 상하수도 시설 현대화 등이 포함됨
- 특히 초르노모르스크 터미널은 35년간의 컨세션 방식으로 추진되며, 사업자는

최소 40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, 별도로 추진 중인 컨테이너터미널 컨세션에는 APM Terminals, Yilport, Abu Dhabi Ports 등 글로벌 항만 운영사들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

○ **Vodafone, 지하 데이터센터 및 흑해 해저 디지털 회랑 구축 프로젝트 공개(6.30)**

- Vodafone Ukraine는 URC 2026에서 국제 인증을 받은 Tier III급 지하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과 이를 흑해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(Kardesa)와 연계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을 발표
- 데이터센터는 Kardesa 해저 광케이블 시스템과 연계 추진되며, 흑해 해저를 통해 불가리아·튀르키예·조지아·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국제 디지털 데이터 전송망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
- 프로젝트는 2027년 불가리아에 첫 번째 케이블 육양국(Landing Station)을 구축한 이후 튀르키예, 조지아, 우크라이나 순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임

○ **Building Development·Alterra Group, 키이우 외곽에 'Obriy' 리테일 파크 착공(7.1)**

- Building Development와 Alterra Group은 키이우 외곽 비시호로드 방면에 연면적 15,000m² 규모의 'Obriy' 리테일파크 건설을 시작함
- 프로젝트는 3개 동으로 단계적으로 개발되며, 2026년 말~2027년 초 1단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Silpo를 핵심 임차인으로 유치했으며, JYSK, Sinsay, CCC, LC Waikiki 등 주요 유통 브랜드의 입점이 추진되고 있고, 방공 대피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임

○ **일본·우크라이나, 드론 클러스터 설립 추진으로 방산기술 협력 확대(7.2)**

- 일본과 우크라이나는 '일본-우크라이나 드론 클러스터(Japan-Ukraine Drone Cluster)' 설립을 추진하며, 일본 제조업체, 우크라이나 방산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및 기술기업 간 협력을 통해 드론 기술 개발과 생산 역량을 강화할 계획
-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실전 드론 운용 경험을 자국 드론 산업 육성과 자위대 현대화에 활용할 방침이며,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 확대에

대응해 무인체계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

- 일본은 독일 비스바덴(Wiesbaden)의 NATO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조정 본부에 자위대 장교를 파견하고,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를 지원하는 국제 금융 프로그램 참여도 검토 중
- 사우디 FAS Energy, 키이우주 태양광발전소 4개 인수 승인 획득(7.2)
 -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(AMCU)가 사우디아라비아 재생에너지 기업 FAS Energy의 키이우주 소재 태양광발전소 4개에 대한 지분 인수를 승인
 - 승인 대상은 Borodianka Solar Power Plant, Myhalkivka Solar Power Plant, Solar Power Plant No. 8, Solar Power Plant No. 11 등 4개 법인으로, FAS Energy는 각 회사의 의결권 50% 초과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취득하게 됨
- Carlsberg Ukraine, 리비우 공장 열병합발전 도입 추진(7.3)
 - Carlsberg Ukraine는 2026년 말까지 리비우(Lviv) 맥주공장에 가스 열병합 발전(CHP) 설비를 가동해 공장의 전력 수요를 100% 자체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
- 노르웨이 Kongsberg-우크라이나 DevDroid, 무인지상로봇 공동 개발·생산 협력 체결(7.3)
 - 노르웨이 방산기업 Kongsberg와 우크라이나 무인지상체계(UGV) 개발기업 DevDroid는 원격조종 로봇 플랫폼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함
 - 양사는 Kongsberg의 원격무장체계(Remote Weapon Station) 개발 역량과 DevDroid의 실전 운용 경험을 결합해 차세대 무인지상로봇을 공동 개발하고, 우크라이나와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을 확대할 계획임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①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 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 업 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
'25. 10월 ORLEN,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
'25. 11월 현지SPC,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
'26. 3월 현지SPC-현엔-카인드 구조조정(안) 관련 합의 완료

- (주요동향) '26.3.30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회생안 제출하였으며,
'26년 상반기 중 폴란드 법원의 심의 결과 도출 예정

② Ursus 열병합 발전소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KIND, 남동발전, 베올리아, BHI
- (사 업 비) USD 453백만
- (사업기간) 2026.2.~2054.12. (건설 38개월, 운영 25년)
- (주요내용) 전기 110MWe, 열 90MWt 규모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
- (추진현황) '23. 4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의결
'24. 1월~7월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(F/S 컨설팅지원)
'25. 10월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 실시 (남동발전)
'25. 12월 KIND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
'26. 7월 금융종결 및 NTP 발급
'29. 8월 COD

- (주요동향) 주주 간 계약 등 주요 계약서 execution version 도출 협의

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S건설, Cordia, KIND
- (사 업 비) PLN 83.34백만
- (사업내용) 총 전용면적 5,296m², 중형(수평분리) 및 대형주택(수직분리) 36세대 건설
- (추진현황) '25. 2월 GS건설-Cordia 공동개발 논의
'25. 3월 GS건설, KIND向 사업참여 요청
'25.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
'25. 9월 GS건설-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
'25. 12월 투자심의 승인
'26. 1월 이사회 승인

- (주요동향) '26년 6월 법률자문(현지법인 설립) 시행, 이사회 부의(자회사 설립)
'26년 7월 투자계약 및 SPA 체결(KIND↔ZEIT)
*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,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

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LX판토스, KIND, PIS펀드
- (사 업 비) € 129.7백만 (약 2,075억원)
- (사업내용) 총면적 108,977m² 규모 물류센터 5개동(Phase I: DC 1·2동, Phase II: DC 3,4,5동) 건설
- (추진현황) '24.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(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)
'25.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
'25.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
'25. 12월 KIND 투자승인 /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
'26. 1월 금융종결
'26. 3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(예정)

- (주요동향) '26.7. Phase II 잔여 부지(DC4, DC5) 임대차 계약 체결

⑤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통합 관제센터

< 사업 개요 >

- (주관기관) 이에스이(주), (주)아이티코어스, (주)영국씨애플
- (수원정부) 폴란드 루블린시청
- (사업기간) '26.4.1 ~ '26.12.26.
- (사업예산) 700백만 원
- (사업내용)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과 통합 관제센터 구축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, 기존 교통관제 고도화 및 실증사업 수행
- (추진현황) '26. 4월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및 현지조사 수행
'26. 8월 현지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(8.4.)
'26. 9월 국내 초청 역량강화연수 예정
'26.12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- (주요동향) '26.4.28.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및 LoI* 체결(KIND-루블린시)
'26.6.2. MoU* 체결(KIND-루블린시)

* 스마트시티 협력 및 루블린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역할과 관계 규정

⑥ 우크라이나 EIPP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전략 10개년 및 3개년 실행 계획 수립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주관기관) 안진회계법인(재무), 현대경제연구원(경제), 스마트도시건축학회(도시)
- (수원정부) 우크라이나 경제농업환경부
- (사업기간) '26.2.13. ~ '26.9.10. (210일)
- (사업예산) 1,241백만원 (재위탁 용역금액 818 백만원)
- (사업내용)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구조를 클러스터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함
- (추진현황) '26. 4월 착수보고회 개최 완료(온라인, 27일)
'26. 6월 세부실태조사 수행/URC 폴란드 행사참여(6. 22.~6. 28.)
'26. 7월 역량강화연수 및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(국내)
'26. 9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- (주요동향) 착수보고회 개최(4.27), 현지조사 및 URC 재건회의 참석(6.25~26)

참고	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		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 이 우 교 통 마스터플랜 (완 료)	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	KIND LH	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 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 플랫폼 구축) 국토교통 ODA 추진
우만 스마트 시 티 마스터플랜 (완 료)	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	KIND	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'24년 4월) • EDCF 사업화 모니터링 (계속)
보 리 스 필 공 항 현대화 등 재 건 (추 진 중)	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	한국 공항공사	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('24.12), 최종보고('25.12)
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 (완 료)	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	환경산업 기술원	• Pre-F/S 수행결과 최종 평가 완료('26년 1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 • 현지상황 모니터링 후 후속사업 추진여부 결정
댐 재건 및 현대화 등	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	수자원 공사	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, 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6년 3분기)
철 도 노 선 고속화 등 (추 진 중)	• 우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 중 4개 구간 타당성 조사 ①키이우~지토미르~루츠크~국경(약 375km) ②키이우~빈니차~리비우~국경(약 580km) ③키이우~지토미르~리브네~리비우~국경(약 505km) ④키이우~지토미르~루츠크~리비우~국경(약 525km)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12월) 및 착수 보고회 개최('25.3월) * 외교부 ODA 지원사업 •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('26.12월)

1. 사업 개요

- ☐ 사업명: 해운 및 내륙 항만 인프라 현대화(European Maritime and Inland Ports Infrastructure Modernisation)
- ☐ 공모 기관: 유럽 위원회(European Commission, EC)
- ☐ 공모 마감일: 2026년 10월 6일
- ☐ 총 예산: €200,000,000(약 3,500억원)

2. 사업 목적 및 주요 중점 분야

- ☐ 목적
 - 전유럽 교통망(TEN-T) 내 해상 및 내륙 항만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교통 부문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실공사(Works) 프로젝트 지원
 - 수송 및 항만 운영 전반을 기존 화석 연료 기반에서 전기, 수소, 암모니아, 메탄올, 바이오메탄, 풍력 보조 추진 등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 촉진
- ☐ 주요 용어 정의

용어	정의 및 세부 내용
TEN-T 네트워크	트랜스 유럽 교통망(Trans-European Transport Network)을 의미하며, EU의 전략적 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, 내륙 수로 및 복합 운송 연결망을 포함함. 본 사업의 대상은 이 네트워크에 위치한 항만으로 제한됨.
실공사 프로젝트 (Works Projects)	실질적인 인프라 배치 또는 건설 활동을 의미함. 본 공모는 단순 계획이나 연구가 아닌 실공사 활동만을 지원함.
육상전원공급 (OPS)	선박이 부두에 접안해 있는 동안 항만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임. 선박의 선내 엔진 가동 필요성을 줄여 배출량, 소음, 대기 오염을 저감함.
선박용 배터리 충전	선박이 항만에 접안한 상태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, 근해 해운이나 내륙 수로에서 운항하는 전기·하이브리드 선박에 적용됨.
선박 에너지 시스템 개조(Retrofitting)	기존 선박을 친환경 에너지 또는 청정 추진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의미함.

☐ 주요 중점 분야

- TEN-T 네트워크 내 해운 운송 인프라 현대화
- 운송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저감 및 내륙 수로 운송의 친환경화
- 육상전원공급(OPS) 시스템 및 선박용 배터리 충전 시스템 구축
- 항만 전동화(Electrification) 및 전력 그리드 업그레이드
- 선박 에너지 시스템 장착 및 개조(Retrofitting)
- 하이브리드 및 대체 연료 추진 기술(수소, 암모니아, 메탄올, 바이오메탄 등)
-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(Wind-assisted propulsion)
- 항만 내 재생에너지 발전 및 육상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

3. 지원대상 프로젝트 및 기술 유형

☐ 항만 인프라 및 충전 시스템

- 해상 화물선, 여객선, 예인선, 크루즈선을 위한 육상전원공급(OPS) 시스템 구축
- 해상 선박 및 내륙 수로 선박을 위한 육상 배터리 충전 인프라
- 전기 및 하이브리드 선박용 충전 인프라
- 청정에너지 시스템 지원을 위해 필요한 항만 내 전력 그리드 업그레이드

☐ 선박 기술 및 개조

- 내륙 수로 선박 및 근해 해운 선박의 에너지 시스템 개조
- 페리(Ferries) 선박의 청정에너지 기술 전환
- 지원 기술 유형
 - 전기 추진, 하이브리드, 수소, 암모니아, 메탄올, 바이오메탄, 기타 대체 에너지원 및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

☐ 재생에너지 및 연계 인프라

- 인정 범위
 - 상기 육상 전원 공급 및 충전 시스템에 직접 연결·귀속되는 태양광(PV) 시스템, 풍력 터빈,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, 외부 전력망 연결 공사 비용 포함 가능

○ 편성 한도

- 본 보조금 사업의 목적(선박 충전 인프라 구축) 유지를 위해, 해당 연계 인프라 예산은 총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20%를 초과할 수 없음

4. 신청 자격 조건

☐ 신청 대상

- 공공 및 민간 법인 모두 신청 가능(항만 당국, 공공 인프라 기관, 민간 항만 운영사, 선사, 에너지 인프라 공급업체 등)

☐ 설립 국적 요건

○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에 설립된 법인

- 유럽연합(EU) 회원국
- 유럽연합 외 해외 영토 및 국가
- Connecting Europe Facility(CEF) 프로그램 참여국에 설립된 법인

☐ 인프라 접근성 요건

- 본 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인프라는 모든 운영자에게 차별 없이 개방(Accessible on a non-discriminatory basis)되어야 하며, 특정 기업이나 상업적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독점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됨

5. 신청 시 주요 유의사항

☐ 제안서 작성 단계

- 프로젝트가 TEN-T 해상 또는 내륙 항만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
- 신청자가 적격 국가에 설립된 법인인지 확인
- 연구·기획이 아닌 실질적인 '공사(Works)' 프로젝트임을 증명
- 구축, 업그레이드 또는 개조할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세부사항(용량, 사용자, 선박 유형 등)을 기술
- 해당 프로젝트가 운송 배출량을 어떻게 감소시키는지 구체적인 기여도를 증명
- 핵심 실공사 비용과 재생에너지·연계 인프라 요소의 비용을 명확히 분리하고, 해당 요소가 20% 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